화재 현장 지난 13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모텔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모텔 새벽 화재 3명 질식사

13일 광산구 우산동 … 지하 유흥주점서 발화·11명 부상

경찰, 소방서 과실 여부도 수사

새벽 시간대 광주의 한 모텔건물에서 불이나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경위를 밝히는 한편, 소방당국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명 사망 11명 질식**=지난 13일 새벽 4시5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모텔 건물 지하 1층 장모(여·55)씨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이 건물 2~5층 모텔 객실에 묵고 있던 김모(여·60)씨 등 3명이 숨지고, 오모(48)씨 등 11명이 연기에 질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의료 관련기관 직원들로 서울에서 내려와 이날 모텔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한 뒤 투숙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모텔에는 총 32개의 객실이 있으며, 이날은 객실 28개에서 30여명의 투숙객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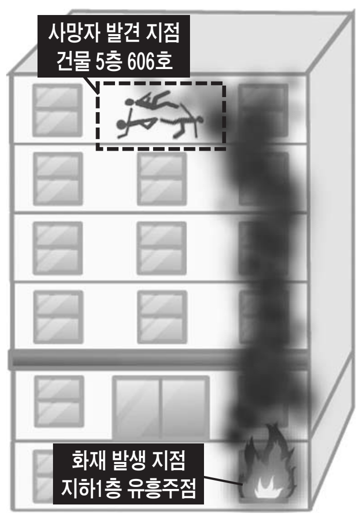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 결과 주점의 룸 1곳이 집중적으로 탄 점과 이 룸의 천장이 심하게 그을려져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 대응 과실 여부 조사**=경찰은 화재에 대한 소방당국의 대응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광산경찰은 14일 "모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진압하는 과정까지 소방당국의 과실이 없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화재의 규모 및 재산 피해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화재 현장 개요도



경찰은 ▲'소방대원의 미흡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목격자들의 주장 ▲사다리차가 아닌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한 이유 ▲25분 만에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음에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방당국의 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화재 진압이 관련 매뉴얼과 당시 상황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광산소방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이날 화재 진압이 매일 실시하고 있는 '현장활동 표준기본법 훈련'을 토대로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모텔 건물의 한쪽 벽면 쪽이 사다리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해 구조활동을 벌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재 진압 시간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불보다 무서운 유독가스

지하 1층 불 사상자는 5층 투숙객

'굴뚝 효과' 연기 계단 타고 올라가

모텔 화재 발생 직후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관 250여명을 투입, 출동한 지 2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불이 난 지하 1층 주점은 내부면적 234㎡ 가운데 94㎡만 불에 탄 반면, 모텔에서는 3명이 사망하는 등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참사가 화재 당시의 뜨거운 불보다 유독가스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날 불이 나자 당시 주점에 있었던 손님 등 7명은 재빨리 외부로 대피해 화를 면했다. 하지만 5층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던 김모(여·60)씨 등 3명은 발화지점인 지하 1층 주점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온 유독가스를 마시고 숨졌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현상이 건축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따라 공기가 이동하는 이른바 '굴뚝효과' 때문으로 풀이했다. '굴뚝효과'란 건축물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높으면 공기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반대일 경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새벽시간대 낮은 외부 온도에 비해 난방 중이었던 모텔의 건물 내부 온도는 높았을 것"이라며 "결국 지하 1층 주점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건물 꼭대기 층까지 그대로 올라갔던 것이 참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어린이 놀이터 불안

광주 대부분 안전관리 기준 미달

광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의 상당수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 기준에 미달돼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오섭 의원(민주·북구 2)이 14일 광주시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데다, 현재 시설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워 내년 1월 이후 자칫 이용중단 조치를 당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설치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해당 놀이시설 이용을 전면 금지되며 법 시행 이전 설치된 놀이시설은 2012년 1월까지 4년간 법적용이 유예된다.

따라서 내년 1월까지 안전관리 설치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전면 폐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594곳으로 이 가운데 13.3%인 213곳만 설치검사를 완료했다.

특히 대부분의 놀이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민간관리 대상이라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단지의 경우 전체 887곳 중 고작 8.6%인 76곳만 설치검사가 이뤄진 상태다.

조 의원은 "지난 2008년 이전 설치 당시 안전기준체계가 현재 안전관리법과 다르고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 있어 아무런 조치 없이 설치검사를 받을 경우 대부분 불합격될 것"이라며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치구와 각 아파트단지의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이 설치검사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좀도둑의 '완전범죄 행동강령'

5개 조항 만들어 실천

16차례 전과 때문 덜미

각종 배달일을 하며 절도를 일삼아온 30대가 '완전 범죄'를 위해 행동강령까지 만들었지만 전과때문에 꼬리가 밟혔다.

광주동부경찰은 14일 광주지역의 상가나 가정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33·완도군 완도읍)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신모(27·광주교도소 수감중)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9월 7일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이모(35)씨의 주점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이 든 소형금고를 통째로 들고가는 등 41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절도 등 전과 16범의 김씨는 택배나 퀵서비스, 중국음식점·다방 배달원 등을 하며 광주 도심 지리와 상가·주택의 구조를 익힌 뒤 며칠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현금만 절취한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CC(폐쇄회로)-TV나 경비업체의 안내문이 있는 곳은 들어가지 않는다 ▲(장물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금패물은 훔치지 않는다 ▲강간 등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하지만 김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상가털이가 빈번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전과자 조회를 통해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994년 이후 16차례의 동일 전과 기록으로 인해 '완전범죄'에 실패했다. /양수현기자 yang@

경찰청 총경급 업무성과 평가

상위 30%에 광주 4·전남 8명

경찰청이 총경급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30%에 든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전남경찰청도 14일 소속 총경 중 성과 상위자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본청과 16개 지방청 등 전국의 총경 494명 가운데 136명이 업무성과 상위 30% 안에 포함됐다.

광주청은 나유인 정보통신담당관, 박봉기 남부서장, 양성진 동부서장, 한재숙 경무과장 등 4명이 업무성과 상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전남청은 김재병 정보과장, 한기민 여수서장, 황호선 순천서장, 안동준 고흥서장, 김창식 전남청 보안과장, 하태옥 목포서장, 안병호 화순서장, 김명호 진도서장 등 8명이 30% 내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평가 결과를 오는 20일께 발표할 경무관 승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무관은 전체 35명이며, 총경 중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10명 안팎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윤참 〈8169〉 김종두

박재순 전 최고위원 습격 5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3일 토지보상소송에서 박재순(66) 전(前) 한나라당최고위원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전 최고위원을 살해하려한 윤모(55)씨〈광주일보 11월11일 6면〉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4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박 전 최고위원의 집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박 전 최고위원과 부인의 이마 등에 도끼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패러글라이딩 50대 추락 부상

14일 낮 12시30분께 영암 월출산 바람재에서 30m 떨어진 경포대 인근에서 양모(56·경기도 시흥시)씨가 조종하던 패러글라이더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양씨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양씨는 신고 받고 출동한 전남소방항공대에 의해 구조됐다. 양씨는 이날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마치고 홀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오물 투척

쌍나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40대 남자가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14일 오후 1시9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정모(48·무직)씨가 미리 준비한 오물을 투척한 뒤 유인물을 뿌리는 등 난동.

○…이 남성이 뿌린 오물은 인분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 뿌린 유인물에는 "친북 좌파세력들이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 /연합뉴스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